

# 챗GPT보다 빨리 최신정보 '업데이트'

## 테크리뷰 퍼플렉시티 답변엔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다." 2011년,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안드레센이 한 이 말은 디지털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쥘리안 홀비디어 CEO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IT 기술은 급속하게 진화하며 우리 삶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브릿지경제는 '테크리뷰' 시리즈를 통해 변화의 물결 속에 혁신을 이끄는 IT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테크 서비스 후기를 독자께 전달한다.

질문서 웹문서 실시간으로 접근·제공  
출처도 외신보단 국내언론 인용 많아  
유료서비스, 이미지 생성 등 아쉬움도

검색 트렌드가 검색 엔진(Search engine)에서 답변 엔진(Answer engine)으로 바뀌고 있다.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페이지가 나열되고 링크를 모두 클릭해 답변을 찾아야 한다. 반면, 답변 엔진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하나의 답을 제공한다.

오픈AI 출신 아라빈드斯里니바스가 2022년 창업한 '퍼플렉시티'는 답변 엔진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설립 21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에 오른 데 이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에게 투자를 받았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관련 1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자사 고객에게 이달 말까지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퍼플렉시티가 내세운 강점은 정확성과 최신성이다. 모든 답변에 출처 링크를 제공하며 웹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근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져온다. 퍼플렉시티와 챗GPT에 '올해 국내 단풍이 늦은 이유'를 물었다. 챗GPT 01은 지난해 9월까지 데이터만 학습했다는 인내와 함께 일반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기반으로 답했으며 사용자는 출처를 클릭해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미국 테크 기업인 퍼플렉시티는 같은 질문에도 설정 언어에 따라 답변 차이를 보였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미국 대응'을 묻는 영어 질문에서는 CNN 등 미국 언론사를 인용했다면, 한글 질문에서는 KBS 등 국내 언론사를 인용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책도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는 후속 질문 리스트도 제공한

다.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중 누가 더 우세한지' 묻자 하단에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앞서는 이유' 등 꼬리 질문이 생성됐다. 그러나 해당 질문을 클릭하자 해리스가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했던 기사들이 포함돼, 검색 과정 전반에 대한 맥락과 의도는 담지 못했다.

현재 퍼플렉시티 사용자는 무료 모델과 월간 구독료 20달러의 유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유료 버전 '프로'는 일일 30회 이상 프로 모드 검색(무료 버전은 5회), GPT 4o·클로드3·라마3.1 등 AI모델 선택권, 답변 시각화, 무제한 파일 업로드·분석, API 크레딧으로 월 5달러 획득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일론 머스크' 업적을 묻자 유료 계정은 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각 업적에 대한 연도와 세부 사항을 제공했으며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가독성이 높았다. 다만 유료 버전의 답변 시각화는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과 비교했을 때 프롬프트로 이미지 제작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퍼플렉시티의 유료 모델은 고급 검색 기능과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이미지 생성 등 부가 기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국내의 관광객들이 13일 서울 창경궁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연계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국가유산 '갤럭시 AI' 체험행사

### 창덕궁·창경궁 AI통역 서비스 사진 퀴즈쇼 등 이벤트도 마련

삼성전자가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0월에 진행되는 다양한 국가유산 축제를 맞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서울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2일부터 27일까지 창덕궁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응주, 화순 - 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조선 영조의 둘째딸 '화순 응주'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 기능으로 내·외국인 회차 구분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참여자는 '실시간 통역'으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관련 사진과 내용의 경우 '번역'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모두 '서클 투 서치'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조선 시대의 왕실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궁중문화축전'과 연계

해 9일부터 13일까지 창경궁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갤 S10 시리즈'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창경궁을 방문한 고객들은 환경전에 위치한 궁중놀이방에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과 '서클 투 서치'를 활용한 퀴즈쇼를 즐겼다. 퀴즈쇼는 축제 자원활동가 '공이둥이'와 함께 진행했으며 참여 고객은 궁과 연관된 사진 퀴즈 등의 정답을 '서클 투 서치'를 통해 확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궁궐에서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갤럭시 AI'와 전통 문화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일상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갤럭시 AI'를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하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화경 기자 peace201@viva100.com

## 현대차·기아, 올해 美전기차 판매 10만대 임박

### 지난달까지 9만1348대 판매 성과 대형SUV 인기... 전년보다 30%↑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 10만대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3일 현대자동차·기아에 따르면 올해 1~9월 미국 현지에서 두 회사가 판매한 전기차는 모두 9만134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111대와 비교하면 30.3% 증가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4만8297대, 기아의 경우 80.3% 급증한 4만3511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중 '아이오닉5'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3만318대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올해 최종 집계되는 판매량은 지난해 판매량(3만3918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은 1만5970대 집계되며 판매량을 견인했다. 현대차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전기차 양산에 들어가면 전기차 판매량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HMGMA는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곳에서 내달 공개 예정인 대형SUV 아이오닉9 생산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를 포함해 모두 6~7개 차종이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 회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기아 쏘울 EV가 판매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1000~2000대 정도였다. 다만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등이 가세하며 2021년 연간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섰으며, 2022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5, EV6 등이 출시되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견인했다.

김성욱 기자 kswpp@viva100.com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열린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Inno Connect)'에서 회사 사업 분야와 경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G이노텍 제공

## 美서 채용박람회 연 LG이노텍 문혁수 "꿈꾸는 미래인재 발굴"

### AI·로보틱스 등 미래전략 발표 글로벌 인재 적극적 지원 약속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사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확보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LG이노텍은 문 대표가 최근 김홍식 최고인사책임자(CHO), 노승원 최고기술책임자(CTO)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Inno Connect)'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EO가 직접 참석한 이번 해외 채용 행사는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LG이노텍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표의 경영방침을 본격화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포드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주립대, 퍼듀대 등 미국 주요 20여 개 대학 박사 및 박사 경력 대, 일리노이주립대, 퍼듀대 등 미국 주요 20여 개 대학 박사 및 박사 경력

보유자 32명이 초청됐다. 참석 인재들의 주요 연구분야는 AI, 자율주행, XR, 로보틱스 등으로 LG이노텍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이 깊다.

문 대표와 경영진들은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초청 인재들에게 공유했다. 이어 LG이노텍 연구원들이 광학·자율주행·AI 분야의 핵심 기술 트렌드와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문 대표는 경영진들과 함께 'C 레벨과의 대화(Talk With C-Lessels)' 세션을 열고 회사의 전략, 기술 로드맵, 전문가 육성 정책 등 인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인재들은 광학,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차별화 기술력과 미래 준비 현황, AI/디지털 트윈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문 대표는 "LG이노텍은 우수 인재들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과 폭넓은 연구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세계 최고의 고객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약 95%가 글로벌 고객 대상의 해외매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은 지난 7월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인턴십에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30여명이 참여했다. 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R&D, 생산기술,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에 배치됐다. 인턴십 우수 수료자는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인턴십 외에도 LG이노텍 베트남 법인에서는 하노이공과대, 호치민 폴리테크닉대학 등 베트남 현지 주요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계약학과 운영, 인턴십, 진로 지도 등 다양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경 기자 peace201@viva100.com

##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딸 결혼식서 첫 만남

### 나란히 혼주석에... 재계 총수 총출동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열린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만났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민정씨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해 혼주석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본식보다 2시간가량 일찍 식장에 도착해 하객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해 대면한 적은 있지만,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이번이 첫 만남이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이 된 후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셈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심리 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이후 양측 모두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장녀 최유정 SK바이오팜 사업 개발본부장을 비롯해 차녀 민정씨, 장남 최인근 SK E&S 패스키 매니저와 자주 교류하며 진로에 대해 상담하거나 경영 수업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아들과 어깨동무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애들과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며 "이게 어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결혼식에는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사촌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정원 SK수퍼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일가친척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재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